

북한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여론조사(일반국민과 전문가)

이병두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정치학 박사

본 조사는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전국 1000여 명의 일반국민과 100여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북한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북한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조사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일반국민은 전국 1000여 명이었고, 전문가는 100여 명이었다. 본 조사는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2007년 11월 21일 발표되었다. 본 조사는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2007년 11월 21일 발표되었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국민이 전문가 보다 북한사회에 대해서 더욱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의 김일성 조문 행렬을 강제에 의한 행위로 보는 응답자 비율이 전문가보다 일반국민에서 더 많았으며, 북한 사회의 경제사정이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하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일반국민에서 더 많았다. 또한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 보다 일반국민에서 더 많았으며, 북한의 개방정책확대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더욱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북한이 남북경협을 머지않아 중단할 것이라는 의견도 전문가 보다 일반국민에서 더 많았다.

그러므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경직된 사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남북간의 경제수준 격차가 줄어들어야 통일에 도움이 되므로 경제협력을 포함한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하여 북한의 경제회생을 도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서

남북관계가 적대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는 우리 국민이 북한 사회의 실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북한 사회 실상 중에서도 북한사회의 경직성, 부정부패, 경제적인 심각성 정도를 중점적으로 물어 보았고 또한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에 대해 우리국민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우리국민들은 대부분 북한경제가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회복될 전망도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우리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든다는 사람이 많다.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우리국민들의 대부분이 북한사회에 부정부패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전체에 만연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1. 김일성조문 관련 북한주민 행동자발성에 대한 평가

	일반국민 %	전문가 %
(1) 강제적인 측면	59.6	40.5
(2) 자발적인 측면	28.3	39.0
(3) 잘 모르겠다	12.1	20.5

북한주민의 조문행렬에 대해 일반국민은 강제에 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59.6%)이 자발적인 행동(28.3%)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전문가들 중에는 강제에 의한 행동이라는 응답(40.5%)이 자발적 행동이라는 응답(39%)과 거의 비슷하였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일반국민들이 전문가보다 북한사회를 더욱 경직된 사회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는 북한의 주민들이 해방이후 김일성 우상화 작업에의해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성을 우상으로 모시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강요하지 않더라도 행해지리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일반국민보다 더욱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일반국민들 중에서는 강제에 의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연령층(50대이상 70.6%)에서 많았고 자발적인 행위라는 사람은 학생(42.5%), 자유전문직(40.8%)에서 비교적 많았다.

2. 가장 신뢰하는 북한 소식 정보원

	일반국민 %	전문가 %
(1) 국내 언론보도	33.5	23.5
(2) 외국 언론	27.1	27.5
(3) 귀순자 증언	22.5	9.5
(4) 학계 및 연구기관 발표자료	8.0	27.0
(5) 정부발표	4.8	6.0
(6) 해외 친지	1.8	1.0
(7) 기타	1.1	5.5
(8) 모르겠다	1.3	-

북한 소식을 접하는 정보원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나고 있다. 일반국민의 경우는 국내 언론보도(33.5%), 외국 언론(27.1%), 귀순자의 증언(22.5%)의 순이었지만, 전문가의 경우는 외국 언론(27.5%), 학계 및 연구기관 발표자료(27.0%); 국내 언론보도(23.5%)의 순으로, 일반국민의 경우 비교적 신뢰도가 높았던 귀순자 증언(22.5%)은 전문가의 경우는 9.5%로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경우 외국 언론을 신뢰하는 응답자가 32.0%로 가장 많았고, 정부발표에 대해서는 50대이상의 고연령층이 10.5%(20대 3.0%, 30대 2.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북한 경제사정 평가

	일반국민 %	전문가 %
(1) 어렵기는 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13.9	7.0
(2) 심각하지만 체제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37.0	51.5
(3)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45.9	40.0
(4) 잘 모르겠다	3.3	1.5

최근 중앙일보에 연재된 이찬삼 기자의 기사에서 보도된 것처럼 북한 주민은 하루에 두기도 제

대로 먹지 못하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국민들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 82.9%, 전문가 91.5%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심각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사이에 약간의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반국민의 의견이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하다』(45.9%)는 평가가 가장 많은 반면, 전문가의 의견은 『심각하지만 체제가 흔들릴 수준은 아니다』(51.0%)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일반국민의 경우 북한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는 응답도 13.9%나 되었는데, 이는 북한 경제가 전부터 어려웠던 것이지 최근에 특히 더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의견으로 이해된다.

4. 북한 경제 전망

	일반국민 %	전문가 %
(1) 점차 회복될 것이다	22.3	26.5
(2) 현재와 별 변화 없을 것이다	31.1	34.5
(3) 더 악화될 것이다	39.3	34.0
(4) 잘 모르겠다	7.4	5.0

북한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일반국민이나 전문가 모두 향후 북한 경제가 더 악화되거나 현재와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북한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일반국민의 경우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중졸 이하 32.0%, 고졸 39.4%, 대재 42.6%, 대졸이상 41.1%), 학력이 낮을수록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5. 북한 사회의 부정부패 평가

	일반국민 %	전문가 %
(1) 부정부패가 거의 없다	7.3	4.0
(2) 일부 계층에만 부정부패가 만연	56.5	52.0
(3)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	31.3	41.0
(4) 잘 모르겠다	5.0	3.0

북한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일부 계층에만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에게 만연되어 있다』는 의견(일반국민 31.3%, 전문가 41.0%)도 상당히 있어 고도로 통제된 북한사회에서도 부정부패가 많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정부패가 거의 없다는 의견은 매우 미미했다.

학력별로는 부정부패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만연되어 있다는 응답은 대재(38.0%), 대졸이상(34.8%)의 고학력층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부정부패 실상에 대한 자료를 고학력층에서 더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 북한 주민에 대한 국민정서

	일반국민 %	전문가 %
(1) 형제라는 느낌	51.6	62.0
(2) 적이라는 느낌	9.4	5.0
(3) 특별한 느낌이 없다	39.0	33.0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일반국민이나 전문가가 형제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이라는 느낌을 가진 사람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경우 『형제라는 느낌』이 51.6%인 반면 『적이라는 느낌』은 9.4%에 불과하였고, 전문가의 경우도 각각 62.0%, 5.0%로 조사되었다.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응답도 상당히 많았는데(일반국민 39.0%, 전문가 33.0%), 일반국민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북한주민에 대해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응답이 많아, 세대가 바뀔에 따라 북한에 대한 好惡의 감정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0대 52.0%, 30대 41.4%, 40대 29.7%, 50대이상 22.2%). 반면 연령이 많을수록 형제라는 느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대 40.1%, 30대 48.6%, 40대 58.9%, 50대이상 68.6%).

7. 북한 정권에 대한 국민정서

	일반국민 %	전문가 %
(1) 적대감이 든다	39.9	57.5
(2) 적대감까지는 안든다	32.6	29.5
(3) 특별한 감정이 없다	27.4	13.0
(4) 잘 모르겠다	0.1	-

북한 정권에 대한 느낌은 북한 주민에 대한 느낌과는 달리 『적대감이 든다』는 의견이 많았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자는 일반국민의 39.9%, 전문가의 57.5%로서 일반국민보다 전문가가 북한 정권에 대해 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경우 『적대감이 든다』는 응답은 50대이상(49.7%), 40대(44.3%)에서 많아, 40대이상 고연령층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적대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연령이 적을수록 『적대감까지 드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이 많아(20대 37.5%, 30대 34.1%, 40대 29.7%, 50대이상 24.8%), 북한정권에 대한 적대감도 세대가 흐름에 따라 점차 누그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 북한주민과 정권에 대한 정서

	일반국민 %	전문가 %
(1) 북한주민은 형제라는 느낌이 들고 북한정권도 적대감까지 들지는 않는다	18.5	20.0
(2) 북한주민은 형제라는 느낌이 들지만 북한정권에는 적대감이 든다	23.5	36.0
(3) 북한주민에게도 적대감이 들고 북한정권에도 적대감이 든다	5.0	4.5
(4) 북한주민이나 북한정권 모두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다	15.8	7.0

위의 표는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에 대해 각각 물어본 느낌을 교차 분석해 본 것이다. 일반주민이나 전문가가 모두 『북한주민은 형제라는 느낌이 들지만 북한정권은 적대감이 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북한주민과 북한정권에 대해 상호 상반되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II. 북한 권력과 김정일

여기에서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정말로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지,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인지, 개방정책은 더욱 확대해서 추진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 알아 보려고 했다.

김정일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국민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김정일의 권력상태에 대해 더욱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김정일의 개방정책 추진에 대해서 우리국민들은 대부분 점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전문가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1. 김정일의 권력상태 평가

	일반국민 %	전문가 %
(1) 반대세력과의 갈등이 심하다	40.9	14.5
(2) 어느 정도 갈등은 있으나 심하지는 않다	46.3	56.5
(3) 대체로 안정적이다	7.5	24.5
(4) 잘 모르겠다	5.4	4.5

김정일의 권력상태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이나 전문가 모두 『어느 정도 갈등은 있으나 심하지는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현재의 김정일 정권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안정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공고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확연히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국민의 경우는 『반대세력과의 갈등이 심하다』(40.9%)는 의견이 비교적 많고 『대체로 안정적』(7.5%)이라는 의견은 대단히 적는데 반해, 전문가의 경우는 반대로 『대체로 안정적』(24.5%)이라는 의견이 『반대세력과의 갈등이 심하다』(14.5%)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

2. 김정일의 개방정책 추진 전망

	일반국민 %	전문가 %
(1)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다	47.0	71.5
(2) 현재 수준 정도로 유지할 것이다	29.4	25.5
(3) 지금 수준보다 더 축소할 것이다	16.1	1.5
(4) 잘 모르겠다	7.5	1.5

김정일의 향후 개방정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일반국민(47.0%)에 비해 전문가(71.5%)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문가의 경우 김정일의 개방정책 확대 가능성에 대해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아(중졸이하 29.5%, 고졸 43.7%, 대재 51.2%, 대졸이상 58.9%), 고학력일수록 개방가능성에 대해 낙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권력승계 후 김정일의 주력분야 전망

	일반국민 %	전문가 %
(1)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제반 조치 강구	31.9	52.0
(2) 군부장악을 위한 조치	26.5	20.0
(3)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적 권위를 갖기 위한 사상교육 강화	21.9	11.5
(4) 대외적인 외교 노력 강화	17.5	9.5
(5) 기타	1.8	7.0

일반국민이나 전문가 모두 ① 경제난 극복, ② 군부장악, ③ 사상교육, ④ 대외적인 외교노력의 순으로 응답, 김정일정권의 최우선적인 당면과제는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의 경우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제반 조치 강구』라는 응답이 대단히 많은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는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적 권위를 갖기 위한 사상교육 강화』라는 응답이 비교적 많아 일반국민이 전문가 보다 북한 사회에서 이데올로기 교육이 아직도 중요한 통치수단임을 지적하고 있

다. 사상교육 강화를 지적하는 응답자는 학력별로는 중졸이하(33.6%)의 저학력층에서 많은 반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치 강구는 학력이 높을수록 많이 지적하고 있다 (중졸이하 27.9%, 고졸 31.1%, 대재 33.3%, 대졸이상 34.4%). 이것을 볼 때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 정권의 안정은 경제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남북통일 정책 인식에

여기서는 우리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남한과 북한 정부의 통일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통일이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물어왔다. 또 한편 남북이 분단된지 50년이 되는 이 시점에, 그리고 6·25를 겪지 못한 젊은 층의 비율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젊은 층과 고연령층에서 통일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보았다.

통일에 대해 아직 대다수의 우리국민들은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젊은 층에서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희망을 보이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해 대다수 우리국민들은 남한은 단계적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반면 북한은 남북한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거나 무력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북한체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전문가 집단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1.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일반국민 %	전문가 %
(1)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65.1	67.0
(2)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26.0	32.5
(3) 통일이 안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7.9	-
(4) 잘 모르겠다	1.0	0.4

통일관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이나 전문가 모두에서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약 7할로 나타나 통일에 대한 염원을 읽을 수 있었다.

일반국민의 경우 『통일이 안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7.9%)도 적게나마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러한 의견은 20대(11.5%), 학생층(11.9%)에서 많았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학생층이 주체사상에 대해 관심이 많고 북한에 대해 더욱 애정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과는 달리 북한과의 특별한 관계(6·25의 경험, 이산가족 1세대 또는 2세대)가 없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애착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2. 우리정부의 통일정책 이해

	일반국민 %	전문가 %
(1) 북한을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흡수통일하겠다는 정책	11.8	8.5
(2)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정책	71.3	79.5
(3) 통일을 원하기 보다는 현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책	11.3	10.0
(4) 잘 모르겠다	5.8	2.0

통일방식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의 약 7할, 전문가의 약 8할이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을 정치·경제·외교적으로 고립시켜 흡수통일하겠다는 의견도 약 1할, 현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책도 약 1할 정도 되었다.

3. 북한의 통일정책 이해

	일반국민 %	전문가 %
(1)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정책	34.5	17.0
(2) 정치적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는 정책	13.8	11.0
(3) 통일을 원하기 보다는 현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책	45.8	67.5
(4) 잘 모르겠다	6.0	4.5

북한의 통일정책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이나 전문가 모두 『통일을 원하기 보다는 현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정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즉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정책』이라는 응답은 일반국민(34.5%)이 전문가(17.0%) 보다 약 2배 정도 많아, 일반국민이 전문가보다 북한의 통일정책을 무력통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다. 전문가의 경우는 일반국민에 비해 북한의 통일정책을 현상태 유지전략으로 보는 비율이 20%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국민의 경우를 연령별로 보면 20대·30대의 저연령층에서는 현상유지정책이라는 평가가 비교적 많고 무력통일이라는 지적은 적은 반면, 50대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무력통일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1.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

	일반국민 %	전문가 %
(1) 남한은 단계적 통일정책 / 북한은 현상유지정책	33.3	54.5
(2) 남한은 단계적 통일정책 / 북한은 무력통일정책	24.9	14.5
(3) 남한은 단계적 통일정책 / 북한도 정치적 합의 통일정책	9.6	8.0
(4) 남북한 모두 현상유지정책	7.0	7.0

이러한 남한과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을 교차분석하여 보면, 일반국민의 1/3정도는 『남한은 단계적 통일인 반면, 북한은 현상유지책』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4정도는 『남한은 단계적 통일이지만 북한은 무력통일』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통일 시기 전망

	일반국민 %	전문가 %
(1) 5년 이내	9.8	8.0
(2) 5~10년 이내	26.1	33.0
(3) 최소한 10년 정도 지나야 한다	42.5	53.5
(4) 통일되기 힘들 것이다	15.6	2.5
(5) 잘 모르겠다	6.0	3.0

일반국민의 42.5%는 실제로 통일 실현 시기에 대해서 『최소한 10년 지나야 된다』는 장기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은 일반국민보다는 전문가에서 약간 많았다. 통일이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은 일반국민들의 경우 15.6%인 반면 전문가는 2.5%에 불과, 단순히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반국민보다 전문가가 더 낙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5. 실현 가능성 높은 통일방식

	일반국민 %	전문가 %
(1) 무력에 의한 통일	3.0	1.0
(2) 북한체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51.6	67.0
(3) 정치적 합의에 의한 통일	37.8	26.5
(4) 잘 모르겠다	7.6	5.5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이나 전문가 모두 『북한체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정치적 합의에 의한 통일』, 『무력에 의한 통일』의 순으로 전망했다. 전문가의 의견은 일반국민보다 ‘흡수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비교적 많았다. 『무력 통일』 가능성에 대한 응답은 일반국민 3%, 전문가 1%에 불과하여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국민의 경우 연령이 적을수록 흡수통일을 예측하는 응답자가 많았고(20대 59.9%, 30대 51.8%, 40대 49.4%, 50대이상 39.2%), 50대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정치적 합의에 의한 통일을 예측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연령층일수록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5-1 실현가능한 통일방식과 통일시기에 대한 전망

	일반국민 %	전문가 %
(1) 10년 정도 지나 북한 자체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22.3	36.0
(2) 10년 정도 지나 남북한 정치적 합의에 의한 통일	15.8	13.5
(3) 5~10년 이내에 북한 자체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14.9	22.0
(4) 5~10년 이내에 남북한 정치적 합의에 의한 통일	10.1	9.0

실현가능한 통일시기와 통일방식에 대한 각각의 질문을 교차분석하여 보면, 일반국민의 가장 많은 비율인 22.3%는 『10년 정도 지나 북한 자체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의견은 전문가에게서 더 많았다(36.0%). 다음으로는 응답자의 15.8%가 『10년 정도 지나 남북한 정치적 합의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6. 통일 이후의 문제점 전망

	전문가 %
(1) 남북한간 정치사상적 이질감	37.5
(2) 경제적 혼란	29.5
(3) 사회문화적 이질감	18.5
(4)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	5.5
(5) 토지문제	4.0
(6) 인구이동문제	4.0

통일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만 질문했는데, 오랜 시간 다른 체제하에서 생활한 산물인 『정치사상적 이질감』(37.5%)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 수준 차이 등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혼란』(29.5%), 『사회문화적 이질감』(18.5%), 『우리나라의 경제적 부담』(5.5%)의 순으로 응답되었고, 이외에도 토지비용, 인구이동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IV 남북경협

최근 북한이 남북경협을 원하는 듯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강경하게 남북경협을 거부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는 남북경협에 입하는 공식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의 민간기업은 사전 밀약설과 뇌물지불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 투자를 하려고 과잉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시각을 알아본 것이다.

남북경협에 대해서 대다수의 우리국민들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방법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자율에 맡기되 과잉투자나 과잉경쟁을 막기 위한 어느 정도의 정부 통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에 대해 북한은

소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 남북경협 추진에 대한 태도

	일반국민 %	전문가 %
(1) 남북한 경제협력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5.8	3.0
(2)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서 추진한다	31.1	25.0
(3)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	58.8	71.5
(4) 잘 모르겠다	4.4	0.5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더라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가장 많으며 이런 태도는 관심과 접촉 정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전문가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 주목된다.

한편 일반국민 중 남북경협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50대 이상(10.5%)과 중졸이하의 집단(10.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남북경협 추진시 우리정부의 통제수준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 %	전문가 %
(1) 민간기업의 자율에 완전히 맡겨 두어야 한다	13.9	12.5
(2) 과잉투자나 과잉경쟁을 막기 위한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	63.1	71.5
(3) 대화창구를 일원화해서 철저히 정부의 통제하에 진행해야 한다	18.6	14.5
(4) 잘 모르겠다	4.4	1.5

남북경협의 추진쪽으로 적극적 지지를 보낸 일반국민과 전문가들 모두 적절한 정부의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무리 경제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민간기업의 과잉경쟁에 의한 손해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정부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50대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철저한 정부의 통제(28.1%)를 지적한 사람이 비교적 많고, 『민간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9.8%)는 의견은 낮았다. 이것은 고연령층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높아 정부의 통제가 없으면 북한과의 경협에서 우리 기업이 당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1 국민이 바라는 경험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일반국민 %	전문가 %
(1) 경제적 손실 있어도 추진 / 어느 정도 통제	38.6	54.0
(2) 경제적 이익 고려해서 추진 / 어느 정도 통제	20.6	16.0
(3) 경제적 손실 있어도 추진 / 철저히 통제	9.6	8.0
(4) 경제적 손실 있어도 추진 / 민간자유	9.4	8.5

경협추진과 정부의 역할을 교차분석한 결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응답자 모두 정부는 적절한 통제를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3. 북한의 남북경협 태도 전망

	일반국민 %	전문가 %
(1)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다	12.9	14.0
(2)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68.3	80.8
(3) 머지 않아 중단할 것이다	12.8	3.0
(4) 잘 모르겠다	6.1	3.0

객관적인 여건으로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북한이 남북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소극적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는데, 이는 북한이 대외적인 자존심과 국내정치 문제로 솔직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듯 북한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는 의견은 전문가집단에서 더 많은 반면 남북경협 자체가 중단될 것으로 보는 비율은 일반국민이 훨씬 높게 나타나, 전문가 보다 일반국민이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경직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남북경협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평가

	일반국민 %	전문가 %
(1) 개방화가 진행되어 결국 북한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43.5	51.5
(2)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여 체제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24.1	27.0
(3) 북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22.0	14.0
(4) 잘 모르겠다	10.4	7.5

전체적으로 남북경협이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경협이 북한의 경제상황에 도움을 주어 체제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즉 남북경협과 같이 북한의 개방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은 북한의 체제붕괴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남북한 경제수준 차이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일반국민 %	전문가 %
(1) 큰 것이 도움된다	43.4	38.0
(2) 작은 것이 도움된다	48.9	52.5
(3) 잘 모르겠다	7.8	9.5

일반국민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 정도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서로 비슷한 반면 전문가는 경제적 격차가 작을수록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실현가능한 통일방식에서 정치적 합의와 경제적 흡수방안 중 어떤 방식을 전망했는가와 큰 상관없이 경제적 격차는 작은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사결과에서도 전문가의 경우 경제적 격차가 커질 경우 북한이 예측불허의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통일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발표됐다.

6. 쌀 제공에 대한 찬반

	일반국민 %	전문가 %
(1) 찬성(같은 민족으로서 도울 수 있다)	76.3	75.5
(2) 반대(오히려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결과를 초래)	20.0	18.0
(3) 잘 모르겠다	3.8	6.5

최근 선명회 등 많은 사회단체에서 북한에 쌀을 보내려는 움직임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국민이나 전문가 모두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경제력면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V. 경수로 문제 등

최근 북한이 미국과의 제네바 협상에서 핵개발을 포기하는 댓가로 경수로와 중유를 지원 받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한이 이 합의를 이행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한편 우리정부는 경수로 지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고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형 경수로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는 조건에서 이루어진 합의이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 경수로 지원 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전망

	일반국민 %	전문가 %
(1) 포기할 것이다	14.6	36.0
(2)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72.1	56.0
(3) 잘 모르겠다	13.3	8.0

경수로 건설지원 후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으며(즉 제네바 협정이행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 이런 경향은 일반국민이 72.1%로 전문가(56.0%)보다 강하게 나

타났는데 이는 일반국민의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전문가에 비해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북한의 한국형 경수로 거부시 우리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 %	전문가 %
(1) 분담금 지원을 거부해야 한다	47.9	64.5
(2) 약속했던 분담금을 줄여서 내야 한다	21.4	22.0
(3) 한국형이 안되더라도 원래대로 내야 한다	17.6	7.0
(4) 잘 모르겠다	13.1	6.5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할 경우에도 우리정부가 약속했던 분담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약속했던 분담금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끌려다니기 보다는 보다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밀고 나가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수로지원과 관련하여 우리정부가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은 여자(41.1%)에 비해 남자(55.4%)가, 저연령층에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20대 43.1%, 30대 46.8%, 40대 50.0%, 50대 55.6%), 일반국민 보다는 전문인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미국과 북한의 회담 명칭에 대한 의견

	일반국민 %	전문가 %
(1) 북미회담	46.6	51.0
(2) 미북회담	19.5	12.0
(3)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다	26.5	35.0
(4) 잘 모르겠다	7.4	2.0

미국과 북한의 회담명칭에 대해서는 '북미회담'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반정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다'가 10명 중 3명 수준으로 두번째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과 미국 중에서 같은 민족인 북한이 오랜 우방인 미국보다 더 가깝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북한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경제사회연구원에서 하는 국민여론조사를 돕는 면접원 000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북한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어보고자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5년 2월

☞ 지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대전 5. 광주 6. 인천

☞ 구분 : 1. 일반인 2. 경제관련 전문가 3. 정치관련 전문가

☞ 성별 : 1. 남자 2. 여자

☞ 연령 :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 (만 20세 미만과 만65세 이상은 면접중단)

※ 우선, 북한의 선상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1.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 사망한지 수 개월이 지난 지금도 조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00님께서서는 이러한 행동이 자발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강제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1. 강제적인 측면 2. 자발적인 측면 3. 잘 모르겠다

문2. 00님께서서는 북한소식을 접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어떤 것을 가장 믿습니까?

1. 정부발표 2. 국내 언론보도 3. 귀순자 증언 4. 외국 언론
5. 해외 친지 6. 학계 및 연구기관 발표자료

문3. 00님께서서는 북한 사회의 경제사정이 다음 중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1. 어렵기는 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2. 심각하지만 체제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3.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4. 잘 모르겠다

문4. 향후 북한의 경제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점차 회복될 것이다 | 2. 현재와 별 변화 없을 것이다 |
| 3. 더 악화될 것이다 | 4. 잘 모르겠다 |

문5. 00님께서서는 북한 사회의 부정부패 정도는 다음 중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부정부패가 거의 없다 | 2. 일부 계층에만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
| 3.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다 | 4. 잘 모르겠다 |

문6. 00님께서서는 북한주민에게 다음중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

- | | | |
|------------|------------|---------------|
| 1. 형제라는 느낌 | 2. 적이라는 느낌 | 3. 특별한 느낌이 없다 |
|------------|------------|---------------|

문7. 그럼,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

- | | | |
|------------|----------------|---------------|
| 1. 적대감이 든다 | 2. 적대감까지는 안 든다 | 3. 특별한 감정이 없다 |
|------------|----------------|---------------|

문8. 현재 김정일의 권력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반대세력과의 갈등이 심하다
2. 어느 정도 갈등은 있으나 심하지는 않다
3. 대체로 안정적이다
4. 잘 모르겠다

문9. 앞으로 김정일은 개방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으로 보십니까 ?

1.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다
2. 현재 수준 정도로 유지할 것이다
3. 지금 수준보다 더 축소할 것이다
4. 잘 모르겠다

문10.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할 경우 북한을 통치하기 위해 가장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다음중 어떤 것입니까?

1.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적 권위를 갖기 위한 사상교육 강화
2.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제반 조치 강구
3. 군부장악을 위한 조치
4. 대외적인 외교 노력 강화
5. 기타(적을 것:)

* 다음은 설문지의 상세적인 분석과 관련된 가설을 가한 것이다.

문11. 00님께서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한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1. 아주 잘하고 있다
 2.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못하고 있다
 5. 아주 못하고 있다
 6. 잘 모르겠다
- (4나 5로 응답한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 정책일관성의 결여
 2. 서두르는 등 때를 놓친다
 3. 부처간 협조문제
 4. 장기적 비전이 부족함
 5. 기타 (적을 것:)

문12. 00님께서 남북한간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2. 통일이 되면 좋지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3. 통일이 안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4. 잘 모르겠다.

문13.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1. 북한을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고립시켜 흡수통일하겠다는 정책
2.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정책
3. 통일을 원하기 보다는 현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책
4. 모르겠다

문14. 00님께서서는 북한이 취하는 통일정책이 다음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1.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정책
2. 정치적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는 정책
3. 통일을 원하기 보다는 현상태를 유지하려는 정책
4. 잘 모르겠다

문15. 00님께서서는 남북한 통일은 앞으로 몇 년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00님의 기대가 아니라 실제 될 것 같은 시기를 골라주십시오.

1. 5년 이내
2. 5~10년 이내
3. 최소한 10년 정도 지나야 한다
4. 통일되기 힘들 것이다
5. 모르겠다

문16. 통일이 된다면 남북통일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0님의 기대가 아니라 실제 될 것 같은 방식을 골라주십시오.

1. 무력에 의한 통일
2. 북한체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3. 정치적 합의에 의한 통일
4. 잘 모르겠다

문17.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협력에 대한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00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문17.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협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00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1. 남북한 경제협력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서 추진한다
3.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문18. 00님께서서는 남북경제협력에서 우리정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민간기업의 자율에 완전히 맡겨 두어야 한다
2. 과잉투자나 과잉경쟁을 막기위한 어느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
3. 대화창구를 일원화해서 철저히 정부의 통제하에 진행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문19. 남북경협에 대해 북한은 어떠한 태도로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1.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다
2.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3. 머지않아 중단할 것이다
4. 잘 모르겠다

문20. 남북경협은 북한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시는지 다음의 항목에서 하나만 골라주십시오.

1. 개방화가 진행되어 결국 북한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2.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여 체제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3. 북한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4. 잘 모르겠다

문21. 남한과 북한과의 경제적 격차가 큰 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격차가 작은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 큰 것이 도움된다
2. 작은 것이 도움된다
3. 잘 모르겠다

문22. 종교단체에서 북한에 쌀을 보내겠다는 발표 이후 다른 여러 단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00님께서서는 이러한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같은 민족으로서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므로 찬성한다
2. 오히려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3. 잘 모르겠다

※ 다음은 경수로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23. 00님께서서는 북한이 경수로 건설 지원을 받게 되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보십니까?

1. 그렇다 (포기한다)
2. 아니다 (포기안한다)
3. 잘 모르겠다

문24.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건설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경수로지원과 관련하여 우리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분담금 지원을 거부해야 한다
2. 약속했던 분담금을 줄여서 내야 한다
3. 한국형이 안되더라도 원래대로 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문25. 이번 경수로 문제로 미국과 북한간에 많은 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북미 회담이라고 했고, 일부 언론은 미북회담이라고 했습니다. 00님 생각에는 어떻게 부르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 | | |
|-----------------|-----------|
| 1. 북미회담 | 2. 미북회담 |
| 3. 어떻게 부르는 상관없다 | 4. 잘 모르겠다 |

【 전문가에게만 질문하십시오 】

문26. 통일된 후에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좋으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자료분류용으로 몇가지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 일반인용 】

1. 00님께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2. 00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재 4. 대졸이상
3. 00님께서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1. 주부	2. 생산/근로직	3. 사무직	4. 자영사업자
5. 자유/전문직	6. 학생	7. 무직/퇴직	8. 기타(적을 것 :)

4. 00님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십니까 ? 이자소득이나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 1. 70만원 이하 | 2. 71 - 100만원 | 3. 101 - 150만원 |
| 4. 151 - 200만원 | 5. 201 - 300만원 | 6. 301만원 이상 |

5. 00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1. 서울 2. 경상도 3. 전라도 4. 경기도 5. 충청도 6. 강원도 7. 이북 8. 기타

6. 그럼, 00님 친아버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1. 서울 2. 경상도 3. 전라도 4. 경기도 5. 충청도 6. 강원도 7. 이북 8. 기타

【 전문인용 】

1. 00님께서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1. 교수 2. 강사 3. 연구원 4. 기타

♣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